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10년

국방력강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시어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열 마전에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참관하며 군사강국의 공민된 공지와 자부심으로 새차게 가슴 설레이고있다.

얼마나 강대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군사력인가. 공화국을 건드리는 원수에 대해서는 지구상 그 어디에 있어도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안길수 있는 미더운 화성포들, 목표물을 순간에 정확히 타격하는 여러 구경의 방사포들, 현대화된 땅크와 각종 전술미사일과 반항공무기체계, 현대전의 요구와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체질에 맞게

설계되고 만들어진 각종 저격무기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선의 국방과학과 무장장비들이 어떤 경지에, 얼마만한 높이에 이르렀는가를 때부로 절감하게 되었다. 군력이 약하면 땅국은 순간이라는 력사의 교훈을 빼어 새긴 이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 이보다 더 금지롭고 행복한 순간이 과연 언제 있었는가.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강국의 위대한 새시대를 펼쳐주시어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안아오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는 절세의 위인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있는것이다.

같이 다쳐 이 땅의 평화를 스스로 지킬것을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력이 강해야 사회주의건설도 힘있게 내밀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통찰하시고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국방력강화의 길을 앞장에서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사격장에 나가시고 바다물에도 서슴없이 들어서시며 화려진지에도 나가시었다. 또 시련의 천만고비들을 강행돌파하시며 조국수호의 역센 보검을 마련해주시려고 끝없는 헌신의 낮과 밤을 바치시었다. 그이의 이렇듯 끝없는 헌신과 로고속에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력사적대업이 이루어져 공화국인민들은 세세년년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

에서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번영과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무장장비들을 수많은 개발하여 공화국의 군력을 날로 강화해나가고계신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년동안에만도 얼마나 많은 주체병기들이 대치를 박차고 날아올랐는가.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침략세력들에게 떨어버릴수 없는 고민거리를 주는 초대형방사포와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예측불가능한 자리길을 새기며 설정된 목표를 정밀타격하는 신형전술유도탄, 공화국의 존엄을 건드린다면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 화성포들, 가장 무서운 멸적의 비수인 전략참수포의 탄도탄... 올해에도 새로 개발한 장거리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반항공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철도기동미사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이 있었다. 정말이지 공화국의 방위력은

3년전, 5년전에 비해 더욱더 강해졌으며 그 비약적인 발전상은 나날이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진정 세계가 놀라고 감탄을 터치는 조선의 경이적인 군력은 민족자존은 공화국의 생명이고 우리 혁명의 근본초석으로 되며 굽어죽고 얼어죽을 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억척불변의 의지로 사생결단의 힘찬 길을 헤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나라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해 마련 해주신 만년재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개막식에서 하신 뜻깊은 기념연설에서 이렇게 호소하시었다. 조국과 혁명, 인민앞에 다진 맹세를 잊지 말고 필승의 신심과 자신심을 가지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몸과 마음,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자고. 천출명장을 모시어 주체조선의 군력은 더욱 비상히 강화될것이며 강력한 군력이 있어 이 땅에는 영원한 평화가 담보되고 공화국인민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확실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었다.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공화국인민들은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계가 우리러보는 위대한 승리와 특출한 성과들을 날마다 창조해가고있다. 일러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나 어느 단위로 할것없이 울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사회주의협동전야들에서는 황금이삭 설레이는 풍요한 가을을 기약하고있다. 뿐만아니라 1만세대 살림집 건설전역을 비롯한 대건설전장들마다에서는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져 완공의 날을 앞당겨가고있으며 자연재해지들에서는 피로의 흔적을 가리지 않는 번듯한 새 마을들이 일떠서 인민의 행복 더욱 커지고있다. 진정 이 땅에 펼쳐진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인민의 존엄과 안녕, 행복을 위해 헌신의 낮과 밤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고계신다. 인민의 불행과 고통을 제일 큰 종대사로 여기시고 그것을 하루빨리 가져주기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도 현지에 나가시어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다름단계에 이행시켜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시러 그이께서는 울해에만도 수많은 중요회의들을 소집하시어 훌륭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밝혀주시고 인민들에게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시었다. 또 시, 군들을 하루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묘술과 방도로 가르쳐주시고 상반기간 사업정형을 상세하

게 분석총화하시고 울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이렇듯 인민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인민의 행복을 이 땅에 하루빨리 꽃피워주시러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위대한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공화국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획기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설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단호한 결심과 철의 의지, 불같은 위대한신속에 국가방위력이 비상이 강화발전되었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맑고 푸른 하늘아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제승으로, 제힘으로 이어 사회주의강국을 안아오고 야말것이며 이 땅에서는 세세년년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져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희생적인 헌신으로 마친해주시는 불패의 군력

공화국은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세계를 이어 지속되는 절대 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속에

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이 조건과 환경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군력을 억척

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이 조건과 환경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군력을 억척



천하무적의 군력으로 안아온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대

강력한 자위력이 없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전진을 기대할수 없다. 오늘 공화국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어떤 침체나 담보도 모르고 전진해나갈수 있게 된것은 날로 강화되는 국방력이 믿음직하게 담보해주고있기때문이다.

공화국에 펼쳐진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다름아닌 공화국의 국력과 대외적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공화국발전의 새로운 시대,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인것이다. 실지 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고있다.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방위력의 발전상을 긍지높이 과시하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개막식소식에 접한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전체 일군들은 지금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초 대모와 함신을 끌고온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겨야 했던 우리 민족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위대한 국가의 한 성원이 되었다. 정말이지 공화국의 공민된 공지가 가슴에 차넘친다. 공화국의 국방력이 어떤 수준, 어떤 높이에 이르렀는가는 전람

회장에 전시된 각종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이 그대로 응변해주고 있다. 오늘의 가슴 벅찬 현실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에게, 후대들에게 강대한 조선을 안겨주시려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생결단의 의지와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험천만한 새 무기개발시험장에 언제나 국방과학전사들과 함께 계시며 군력강화의 앞장에서 헤치신 그이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진정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특출한 령도, 무비의 담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 지역과 세계의 평

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불가항력의 전쟁억제력을 마련해주시어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존엄높은 국가의 공민된 공지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사야말로 만고의 영웅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시이다. 지금 저만이 아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전체 일군들은 민족의 국력을 더욱 강화시켜주시고 우리모두에게 영원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면서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맡은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유성

위대한 국가의 공민된 영예를 빛내여나가겠다

오늘의 성대한 전람회는 불패의 자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여 국가방위력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가는 우리 당의 웅대한 포부와 령도력, 실천적집행력을 집약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하고 우리 국가가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대규모형 병설이 못지 않은 일대 국력시위로 된다고 긍지높이 선언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우렁우렁 하신 그 음성이다. 정말이지 우리 후대들의 머리우

에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을 펼쳐 믿음직한 주체병기들의 모습을 무심히 바라볼수 없고 위대한 우리 국가를 더욱 빛내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는 엄숙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에 끝까지 충직하는 길에서 교육자의 임무를 다할것이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쳐나가겠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박형성

그들처럼 이 땅에 진한 피와 땀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개막식에서 하신 기념연설과 우리 공화국 국가방위력의 발전상에 접하고보니 끓어오르는 격정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이지 위대한 국가의 공민이라는 무한한 공지와 자부심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젖어 드는것을 어쩔수 없다. 그래서 그렇지 어느때는 무심히 바라보던 저 하늘도 더 푸르

게만 보이고 황금이삭 물결치는 이 대지도 더없이 아름답고 소중하게만 느껴진다. 지난날 군력이 약해 땅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우리 민족을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대한 민족으로 되게 하여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진정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시이다. 애국을 말로 하는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기념연설에서 전체 인민들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강력한 의지를 따라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해나가는것을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하고 물질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하시었다. 나만이 아닌 우리 작업반의 모든 성원들은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해 진한 피와 땀을 바친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나라의 활동을 가득 채우기 위해 힘껏 일해가겠다. 강남군 당국협동농장 작업반장 리충국

우리는 더욱 강대해지리라

김태봉

가슴터질듯 높뛰는 벽찬 격정이여 심장의 피 끓이는 열화같은 희열이여 얼마나 장하고 부드럽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것인가 오,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금방 대치를 박차고 우주로 솟구칠듯 통째로 일으킨 화성포의 강한 모습 억세게 추켜든 강철포신들 오, 이것이 조선의 힘 평화수호의 믿음직한 재부이거니 바라볼수록 가슴 공지로 부풀고 눈시울 뜨거이 젖어드나니 위대한 평강과 조국 달달음쳐온 국방력강화의 험난한 길 우리 왜 기어이 가야만 했던가

매없이 벌어지는 저 남녘땅을 보라 뻔뻔스레 《도발》과 《위협》을 떠들며 외세에 추종하여 군비증강에 질주하는 안락이 다른 무례한들

우리 결단고 용납치 않으리 자기의것 지키려는 우리의 당위적권리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하는 궤변을 동족을 해치려는 저들의 대결행동 《안보》와 《역지》로 도배하는 비렬한 행태를

명백히 말해두노라 우리의 힘은 어제도 오늘도 자위의 힘! 강자의 발밑에 짓눌리는 약자의 수치 그것이 저래의 운명이지 않게 하기 위해 불의를 짓부서려 다진 정의의 힘! 국방력강화 그걸로 더 높이 비약하라

그렇다 우리의 힘은 무진막강하다 치욕스러운 동족상쟁의 력사 끝장내고 8천만겨레의 평화번영을 위해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강해지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오, 우리는 더욱 강대해지리라

웃으며 가는 사람들

공화국은 어떻게? 이것이 세계가 품는 조선에 대한 호기심이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치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사상으로 어느 나라나 다 침체에 빠져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대조를 이루는 공화국이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힘으로 모든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창조와 건설을 다그치느니라 몹시도 바쁘고 바쁜 날과 날을 보내고있다. 세계가 공화국의 이 현실을 좀더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면 놀라운것을 발견할수 있다. 모두가 웃는것이다. 그 어떤 비관도 주저도 모르고 누구나 웃으며 생활하고 전진하고있는것이다.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이루어내는 이 대모는 한층 고조된 인민의 웃음으로 더욱 활기를 띠고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에 접하였기때문이다. 지금 대평건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부문에서 송신, 송화지구의 살림집건설을 올해중으로 완공하고 다음단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련속적으로 진입하여 또 하나의 현대적인 구역과 거리를 일떠세우며 새로운 건축형식을 적극 도입하면서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또 한번 솟구쳐오르는 새 힘으로, 환희로 가는 곳마다 들끓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시고 하신 일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한 일이며 그것은 코든작든 언제나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되어 인민들에게 안겨지지 않았는가. 이런 확신이 언제 한번 흔들린적 없는 이 나라 인민들일진대 완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송신, 송화지구의 전변을 보면서 기쁨속에 날과 날을 보내던 이들이 머지않아 새로운 1만세대 건설장을 뽐낼수 있으리 해 행복의 웃음, 만족의 웃음이 절로 나지 않겠는가. 어찌 그뿐인가. 지금 대평지구에도 또 하나의

건설전역이 펼쳐져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대평지구는 어떤 땅인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 바로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이 지적에 있는 곳이다. 언제나 수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이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만경대까마이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게 되니 그 기쁨은 실로 류대론것이다. 앞으로 이 지구도 완전히 모습을 일변할것이다. 평양시만이 아닌 광산과 농촌, 나라의 곳곳에서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새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어 온 나라에 인민의 웃음이 차넘치고있다. 지금은 칠고마비의 계절, 협동밭마다 황금바다 설레이고 산은 산마다 알찬 열매 주렁거린 이 땅에 행복의 레일을 확산하는 인민의 웃음이 풍요함을 더해준다. 본사기자 리연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자위-2021》개막식에서 하신 기념연설과 공화국 국방발전전람회 국가방위력의 발전상에 접한 각계층의 반향